

광주·전남 3월 소비심리 ‘찬바람’…10개월 연속 기준치 ↓

한은 지역본부 소비자동향조사
85.6p…전월대비 0.3p 하락
금리수준전망은 비교적 낙관
전남 주택가격전망 7p 급등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

(CCSI)가 전월대비 0.3p하락하면서 지역 경제에 계속해서 찬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5월 102.3p를 기록한 후 이번달까지 10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p를 밑돌고 있다. CCSI는 소비자동향조사 항목 중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등 총 6개 주요 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로, 기준치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낙관적, 이하면 경제상황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도시가구 중 6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동향조사를 실시했다. 본부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5.6p로 전월대비 0.3p하락했다. 전국 평균은 92.0로 전월대비 1.8p상승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광주의 현재생활형편CSI는 78p로 83p를 기록했던 전월대비 3p 하락했으나 생활형편전망CSI는 83p로 78p를 기록했던 전월대비 4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와 소비지출전망CSI

는 각각 92p, 110p로 전월대비 1p씩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CSI는 47p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향후경기전망CSI는 56p, 취업기회전망CSI는 70p로 전월대비 1p 상승했다. 금리수준전망CSI 또한 118p로 112p를 기록했던 전월대비 6p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78p로 전월대비 2p상승했다. 전남의 현재생활형편CSI는 79p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생활형편전망CSI는 82p로 79p를 기록했던 전월대비 3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

CSI는 전월 90p에서 91p로 1p 올랐으나 소비지출전망은 106p로 110p를 기록했던 전월대비 4p감소했다.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49p, 57p로 전월대비 2p씩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64p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금리수준전망은 120p로 116p를 기록한 전월대비 4p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74p에서 81p로 무려 7p 급등했다. /오지현 기자



지스트 창업기업 2곳, 삼성전자 ‘혁신 스타트업’ 선정

복사냉각기술 활용 소재 개발
AI 기반 축산농가 질병 예방

광주과학기술원은 창업기업인 ㈜포엘과 인트플로우가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광주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광주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해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소재부품 분야 등 지역 내 혁신 스타트업 5개사를 선정했다. 에너지 절감 냉각 소재 개발 기업인 ‘포엘’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복사냉각 기술로 창업한 회사다.

연구 성과를 직접 상용화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 창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10대 나노기술에 선정된 ‘전기 없이 작동하는 플렉서블 색채 냉각 복사 나노소재’의 원천기술이 창업의 핵심기술이다. 국내 최초로 복사냉각기술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송영민 교수는 “기술 창업을 통한 성과가 사회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친환경 냉각소재로 지구 온난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복사냉각 기술을 가까운 미래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I 활용 동물 생체 분석 및 가축케어 플랫폼 기업인 ‘인트플로우’는 지스트 졸업생 전

광명 박사(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홍국 교수 연구실)가 지난 2019년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AI 기반의 맞춤형 축산 자산관리 기능 모델 사업을 비롯해 순수 국산 AI·비접촉 체온측정 방역 시스템 사업 등 영상·음성 딥러닝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광명 대표는 “현재 운영 중인 축산 AI 솔루션 엡팜이 향후 몇 년 안에 축산 농가에서 질병 예방, 개체관리, 환경제어 측면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내달부터 집주인 미납세금 동의없이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 후 임대 시작일까지
세무서·시·군·구청에 신청 가능

4월 1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행안부는 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제도를 안내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에 지방세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세무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 세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이연수 기자

광주경총, ‘임금·단체협약 체결’ 설명회 개최

추진 방향·쟁점 사항 사전 점검
회원사 합리적 전략 수립 도움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 세미나실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이

른바 ‘3고 시대’의 대내외 복합경제 위기와 불확실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올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노동계의 임금·단체협약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사전 점검해 회원사의 합리적인 임금·단체협약 체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광주경총은 ▲2023년 경제전망과 임금관련 주요이슈 ▲2023년 노사관계 전망과 단체교섭 주요쟁점 ▲중대제해감축 정부정책 추

진방향 및 사업장 대응방안 등 3개 주제를 가지고 기업·사례별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단체협약 체결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부도 참여해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오지현 기자

평동농협, 조합원 자녀 23명에 장학금

지역우수인재 3,220만원 전달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평동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2023년 조합원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최삼규 조합장 및 임직원

과 조합원 30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우수인재 대학생 23명에게 총 3,2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평동농협은 지역 내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환원하고 있으며, 지역인재들의

미래를 위한 지원과 조합원 교육비 부담을 경감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최삼규 조합장은 “미래를 열어갈 주역인 지역사회의 젊은이에게 농업과 농촌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자녀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농어촌공 영산강사업단, 시설물 점검·현장교육

영산강 3지구…기술직원 대상
밸브실 합동점검·문제점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최근 공사 기술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산강 3지구 시설물 점검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산강사업단은 3개 담수호에서 13개 양수장을 가동해 간척지 7,852ha와 해남, 무안, 강진, 함평, 영광 등 배후지 9,545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가뭄에도 영산강 3·4지구에 약 1억 9,000톤의 농업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는

가뭄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신입사원부터 입사 33년차 베테랑 직원까지 참석해 기공된 밸브실의 현장합동점검 및 문제점 등을 가감없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물리·기능적 결합 확인에도 나섰다. 공사는 이와 더불어 보수·보강 방법을 모색해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통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 운영일 단장은 “이번 현장교육으로 사업부서는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유지관리부서는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주기적인 예찰을 통해 선량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사후적 대응보다는 항상 선제적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전남농협, 상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교육

금융소비자보호환경 선포

농협전남본부는 농협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와 연계해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남·광주 농축협 신용상무 158명을 대상으로, 농협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고, 차세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이동근 본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중점 추진사항인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지역중심 사업지원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사업별 추진 방향 등 실무 위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전남농협은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환경’을 선포했다. 이날 교육생들은 디지털 금융 플랫폼 ‘NH폭뱅크’의 전국 가입자수 1,000만명 달성을 자축했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과 고객,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초일류 상호금융 구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탁 본부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혁신은 필수가 됐다”며 “농협은 경쟁력 제고로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외국인근로자 위탁훈련기관 공개모집

산인공 광주본부, 내달 11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E-9 외국인근로자 중 재직 근로자와 귀국예정자(3년 이상 재고용, 재입국특례, 특별재입국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훈련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든 훈련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생에게 중식과 교통비가 제공된다. 또한, 교육수료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취·창업훈련과정 수료시에는 특별한국어시험 가점 5점과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

재직외국인근로자 훈련과정은 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용접 직종으로 구성됐고 취·창업훈련 과정은 지게차운전, 제과제빵 직종으로 위탁훈련기관으로 선정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내달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본부·광주지역본부) 공지사항을 참고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로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외국인고용지원부로 문의(062-970-1752~4)하면 된다. /홍승현 기자